

Sigrid Schmalzer, *Red Revolution, Green Revolution, Scientific Farming in Socialist Chin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6. 304 pp.

정원교⁺

냉전의 종말이 아직은 요원하게 느껴졌을 1960년대 중반, 농업 과학·기술은 양극 체제 경쟁의 중핵에 위치해 있었다. 양극의 한 쪽을 차지하고 있었던 미국에게 농업 과학·기술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굶주림을 해결함으로써 사회주의 진영의 확장을 막아줄 도구였다. 때문에 미국 정부의 기획과 지원 아래에서 획득된 농업 과학·기술의 성취들—농해충 관리 기술, 화학 비료, 다수확 신품종 등—과 그로 인한 농업 생산성의 증진은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총재였던 가우드(William Gaud)가 명시했던 것처럼 개발도상국에 공산주의의 “적색 혁명(Red Revolution)”이 아닌 “녹색 혁명(Green Revolution)”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반면 양극의 다른 한 쪽에 위치해 있었던 마오쩌둥(毛澤東, 이하 마오) 시기 중국에게 녹색 혁명은 경제의 대상이었다. 일례로, 적색 혁명을 막기 위해 녹색 혁명을 추진한 인도 정부의 선택은 1969년의 중국 입장에서는 반동이자 인민에 대한 기만 행위로 받아들여졌다(3). 녹색 혁명에 대한 당대 중국 정부의 공개적 태도는 중국이 녹색 혁명을 가능케 했던 새로운 농업 과학·기술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게 해준다.

그러나 쉬말저(Sigrid Schmalzer)는 자신의 저서 *Red Revolution, Green Revolution, Scientific Farming in Socialist China*에서 중국이 새로운 농업 과학·기술에 비판적이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common perception)’(3)에 문제를 제기한다. 쉬말저에 따르면 마오 시기 중국에서는 테크노크라트들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역시 정치적 급진성 여부에 관계없이 과학을

⁺ 서울대학교, wkyjung@snu.ac.kr

통한 농업의 근대화를 추구했다. 가우드가 새로운 농업 과학·기술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국가 구성원들의 삶의 수준 향상을 중국 역시 기대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쉬말저는 중국에서 농업 혁명이 물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이념적 측면에서도 의미를 지녔고, 이 때문에 그것이 국가적 기획으로 추진되었다고 주장한다. 쉬말저에 따르면 중국에서 농업 혁명은 물질적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인 차원에서의 혁명을 가져다 줄 수 있었고, 그랬을 때 정치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었다. 즉, 쉬말저에게 중국에서의 녹색 혁명은 사회주의적 적색 혁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으며, 이 때문에 새로운 농업 과학·기술은 그 출발부터 중국의 사회·정치와 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쉬말저가 이 책 전체에서 일차적으로 보이려고 한 것은 그와 같은 “적색 혁명과 녹색 혁명의 교차”(2)가 정부가 추진한 “과학 영농(scientific farming)” 아래에서 일어난 방식이다. 그와 같은 교차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중국의 지도층만이 아니었다. 쉬말저는 실제 향촌의 소농민(peasant)들, 지역 당 간부 및 테크노크라트들, 중등 이상 교육을 받고 향촌의 과학 영농 현장에 파견된 청년(youth)이라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과학 영농의 현장에서 수행한 실천과 겪게 된 변화들을 추적하여 독자들에게 전달하려 한다.

과학 영농의 현장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쉬말저에게 포착된 것은 “토(土)”와 “양(洋)”의 이항 대립이었다. 당대 행위자들이 직접 사용했던 이 개념들은 각각 전통적인, 중국 고유의, 지역적인, 전원적인, 집단적인, 천연적인 속성과 외국의, 서양의, 엘리트적인, 전문가적인, 상아탑적인 속성들을 내포했다. 쉬말저에 따르면, 마오 시기 중국 농업에서의 혁명이 과학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혁명의 원천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혁명의 과정에서 향촌의 소농민들과 그들이 담지한 것으로 여겨진 경험적 지식이 근대적인 엘리트 지식인 및 그들의 지식과 동등하게, 혹은 더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내세워졌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향촌에서의 과학 영농 수행이 기술을 지닌 청년들, 경험을 지닌 노농, 이를 조율할 지역 간부의 삼위일체적 결합 하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와 같은 형태의 농업 혁명은 곧 정신과 육체 노동, 도시와 시골, 노동자와 소농민 사이의 위계를 철폐하고, 소농민이 포함된 폭넓은 대중들에 의한, 해당 사회의 현실에 맞는 급진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마오식 사회주의 혁명의 추진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1장). 정부는 지속적으로 향촌에서의 농업 과학·기술적 실천이 지

역의 조건 등에 관한 소농민들의 경험적 지식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설파했다(4장). 소농민들의 계급 투쟁을 근간에 둔 이와 같은 혁명의 추진으로 인해 토(土)와 소농민들은 점점 더 양(洋)과 엘리트 지식인들에 비해 중요한 대상으로 내세워졌다.

중국 농업의 혁명 과정에서 토(土)와 양(洋)의 이항 대립과 그 속성의 무게는 당대의 저명한 과학자였던 푸저룽(蒲蛰龍)(2장)과 위안룽핑(袁隆平)(3장)에 대한 사례 연구에서 잘 드러난다. 푸저룽은 1949년 미네소타 대학에서 곤충학으로 박사를 받고 중국으로 귀국한 뒤, 생물학적 방제의 권위자로 활동한 인물이었다. 그는 토(土)와 양(洋)의 이분법으로 보았을 때 명백히 양(洋)에 속하는 과학자였고, 이 때문에 푸저룽은 계급적 위계의 철폐가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형태로 진행된 문화 대혁명의 시기에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이 컸다. 그러나 쉬말저에 따르면, 1970년대 초 광둥(廣東) 따사(大沙) 공사(公社, commune) 지역에서 푸저룽이 지역 소농민들과 협력하여 수행한 작업들은 그가 온전한 양(洋)의 지식인으로 분류되지 않게 해 주었다. 지역의 조건들을 고려한 방제 방안의 고안, 지역 인민들에 대한 교육, 육체 노동 참여와 같은 그의 활동들이 그로 하여금 토(土)의 속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이다. 그의 과학적 성과들이 토(土)의 이상과 문화 대혁명 정치의 핵심들과 공명함으로써 정부의 주목과 높은 평가를 받아나갔다. 위안룽핑 또한 토(土)와 양(洋)의 속성에 의해 다른 평가와 운명을 맞이하게 된 과학자의 예시가 되었다. 해외 유학파는 아니었지만, 그 역시 중국에서 서양 과학을 수학한 양(洋)의 지식인이었다. 그럼에도 위안룽핑은 마오 사후 점점 더 높은 명성을 지닌 과학자로 변모해 갔는데, 쉬말저는 이 과정에서 소농민이었던 그의 출신 성분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였다.

그렇다면 마오 시기부터 중국의 향촌 사회는 정부의 정책이 전면에 내세웠던 것처럼 지역의 현실에 맞춘, 지역의 토착적 지식에 기반해 농업 발전이 이루어진 사회라고 보아도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쉬말저가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며 기울인 노력에 대한 언급이 먼저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쉬말저는 국가 차원에서 추진된 향촌에서의 과학 영농 현장에 참여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이 직면한 현실에 대응해나갔는지를 살핌으로써 과학 영농 정책이 과연 실제로 당대 행위자들에게 무엇이었는지 파악할 기회를 제공하려 했다. 이를 위해 쉬말저는

과학자, 지역 사회의 소농민과 관리들, 전원 지역으로 파견된 젊은 식자 집단들의 활동과 관련된 매우 폭넓고 방대한 자료들을 모으고 엮어냈다. 그는 중국 정부에서 과학적 농업과 관련하여 발간한 다양한 출판물에 더해 신문, 발간된 논문, 아카이브 문서, 일기, 전기와 같은 수많은 문헌 자료들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실제 당대의 여러 행위자들의 회고, 인터뷰 자료 등까지도 자신의 서술 자료원으로 활용했다. 실제 과학적 농업이 수행되었던 현장에 대한 그의 분석(4-7장)은 역사학자이자 민족지 학자로서의 쉬말저의 능력을 잘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수집한 자료들에 접근하고, 그것을 배치해 낸 방식이다. 역사가는 언제나 역사적 자료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특정한 의도나 목적을 지닌 하나의 주장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정부, 그것도 마오 시기 중국이라는 인민의 결집과 정책의 선전 의지가 강한 정부에서 산출된 자료를 다루는 데에는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쉬말저는 마오 시기 중국의 선전물과 출판물들, 그리고 실제 과학적 농업 활동에 참여했던 행위자들이 그 자체로 편향되고 목적을 지닌 메시지들을 던져주고 있을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중국의 출판물들은 당대 중국의 과학적 성과, 전망들을 부풀리고 왜곡시킴으로써 인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 하에서 제작된 것일 확률이 높다. 또한 실제 농업 활동에 참여했던 행위자들은 자신들이 참여했던 활동에 대해 객관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할 확률 역시 높았다. 그러나 쉬말저는 그와 같은 선전물, 행위자들의 발언들이 해당 시기의 진면목을 비춰주는 거울이 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정부의 선전물 속 메시지들은 해당 시기에 정부가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들이 해결해 인민들을 안심·설득시켜야 할 사안들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준다. 쉬말저는 정부의 선전물에 숨겨진 의도를 끄집어낸 후 그 해석을 다른 기록이나 인터뷰의 내용들과 함께 배치시킴으로써 선전의 이면에 가려진 해당 시기의 맥락과 상황, 행위자들의 활동과 갈등, 난점과 성과들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14-21).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살핀 향촌의 모습들은 “토(土)를 중심에 둔 농업 혁명”이라는 정부의 선전 속 정경에는 담길 수 없는 것이었다. 실제 정부의 과학 영농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많은 행위자들은 실제로 향촌의 소농민들이 과학 영농에 참여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해당 지역의 자연 환경을 직접 경험하며 획득한 지식들은 과학 영농의 과정에 기여할 여지가 있었으나, 전

문적 교육을 받지 못한 소농민들이 농업 과학의 영역에 참여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또한 어떤 인터뷰 대상자는 과학자 그룹이 날씨가 지역에 대한 정보도 소농민들보다는 공사(公社)의 농사 시험소에서 획득하곤 했다는 사실을 회고하기도 했다. 소농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교육 수준이 부족하며, 과학과 근대에 필수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고 여기는 인식들이 매우 흔하게 발견된다는 점 역시 쉬말저에 의해 지적되었다. 정부가 “미천한 신분(소농민)들이 가장 현명하다”라는 선전을 반복했다는 사실은, 도리어 그에 반대되는 인식이 당대에 매우 널리 퍼져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었다(107-109).

또한, 정부의 과학 영농 프로그램은 많은 경우 지역의 필요나 조건보다는 중앙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추진되었다. 당시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과학 영농 프로그램은 한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수확되었던 작물을 다른 지역에도 재배하게끔 권장하는, 정부에 의한 “점에서 면으로(point-to-plane)”의 하달식 기획이었다(43). 이 외에도 정부는 지방민들에게는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중앙의 의도와 기획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시들을 향촌에 내렸다(145). 경험적 지식에 기반을 둔 토(土)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농업과 사회의 동시 개혁이라는 정부의 지향점은 실제 현실에서 잘 구현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향촌 소농민들의 저항, 불복종들로 빈번하게 이어졌고, 지역의 당 간부들은 위로부터의 지시와 아래로부터의 불만, 저항 사이의 충돌을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같은 수완 발휘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했다(5장).

실제로 과학 영농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토(土)와 양(洋)이라는 개념의 경계는 현실 세계에서 매우 모호했다. 정부가 토(土)의 부상을 외치며 추진한 시험 작물의 재배와 선택, 지역 사회로의 보급 및 지도 모델은 토(土)와 대척점에 위치한 양(洋), 미국에서 비롯된 농업 발전 시스템이었다(32). 때때로, 무엇이 새로운 양(洋)의 기술이고 무엇이 오래된 토(土)의 기술인지도 모호해졌다. 소농민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기술도 개인적인 사정, 선호, 농사 패턴 등에 따라 낯설게 느껴졌으며, 그 경우 해당 기술들은 토(土)의 것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었다(115-119). 중등 과학 교육을 받고 향촌으로 파견된 청년들에게는 자신의 이해 관계나 영달을 추구하는 부르주아적 과학이 아닌, 농민 계급의 계급 투쟁을 돕고 그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토(土)의 이상을 갖춘 과학이 권장되었다. 그러나 파견된 청년들이 자신들의 활동에 혁명적인 토(土)의 이상을 투영한 경우에도, 그들은 대개 국가가 원했던 농민의 계급 투쟁에는 큰 관심을 기

을이지 않았다(173). 결국 사회적 혁명과 과학적 혁명을 함께 이룰 것을 천명하며 내세워지고 사용된 토(土)와 양(洋)의 구획은 실제 현실에서는 그 실체가 모호했던 것이다. 쉬말저가 사례로 제시한 앞의 두 과학자가 토(土)의 속성을 획득하며 자신의 지위를 재정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처럼 본질적으로 모호했던 두 개념 간의 경계에서 기인한 것일지도 모른다.

결국 쉬말저는 마오 시기 중국의 (농업) 과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마오 시기 중국 정부가 제시한 농업 혁명에 대한 비전이 그린 혁명의 모습 모두가 실제 마오 시기 중국 향촌에서 과학 영농의 이름 아래 이루어진 다양한 실천의 양상들을 담아내지 못함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쉬말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쉬말저는 기존의 전형적 서사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중국 농업의 현실들을 지적했을 뿐만이 아니라, 과학 영농의 기획이 빚어낸 마오 시기 이후 중국 사회의 변화들을 역사의 수면 밖으로 끄집어냈다. 화학 물질의 사용으로 빚어진 환경 오염의 아기와 같은 중요하지만 조금은 진부한 현상들에 대한 지적과 분석도 주목할 만하지만, 쉬말저의 지적 중 우려와 동시에 흥미를 끄는 부분은 과학 영농의 시행으로 개인 및 집단들이 경험하게 된 의미 있는, 어떤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들에 대한 것이었다. 쉬말저 자신이 명확하게 지적했듯이, 그가 책 전체를 통해 추구한 목적 중 한 가지는 정치적인 불편함으로 인해 “역사 속에서 지워졌던 마오 시기 과학 영농의 다양하고 의미 있는 경험들의 구출”이었다(207-208). 그 대표적인 사례는 한 소절이 할애되어 서술된 중국 농촌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 변화였다. 이전까지 소농민의 범주에 포함되지도 못했던 농촌 사회의 여성들은 과학 영농의 시행 과정에서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남성들과 나란히 서서 농업 혁명에 참여할 기회를 획득했다. 쉬말저가 보기에 농촌 사회의 젠더 관계의 변화는 정부가 부르짖은 농촌 사회의 계급 투쟁보다 훨씬 더 뚜렷하고 중요한 변화였다(119-125). 국가의 비합리적인 지시에 대해 향촌 소농민들이 국가에 대한 저항을 학습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중요한 변화였다(147-150). 이전까지는 젊음을 낭비한 집단으로만 인식되어왔던 향촌에 파견된 젊은이들 중에서 사업 참여 경험을 자신의 경력으로 성공적으로 전환시킨 소수가 있었다는 점 또한 조심스럽게 지적되었다(201-205).

이와 같은 지적들이 흥미로우면서도 우려스러운 이유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들을 찾아낸 시공간이 바로 그 마오 시기의 중국, 문화 대혁명 시기의 중국이기 때문이다. 비록 최근 10여 년 간 해당 시기에 대한 재평가가 과학, 대중 문화

분야 등에 대해 이루어진 바 있지만, 그럼에도 마오 시기와 문화 대혁명에 대한 지배적인 이미지는 폭력과 파괴, 광기의 난무에 더 가깝다.¹ “의미 있는” 변화들을 발굴하고 지적하는 행위 그 자체의 의미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은 노력은 해당 시기에 존재했던 (아마도 쉬말저가 지적한 “의미 있는 변화”보다 훨씬 더 심대했을) 희생과 억압들을 간과하게 만들 가능성 역시 지니고 있다. 문화 대혁명을 겪은 마오 시기 중국을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난 때로 재해석하려는 노력에는 해당 시기의 폭력과 파괴, 광기를 어떻게 다루고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역사적 고민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쉬말저의 이 저작에서 문화 대혁명 시기 폭력의 역사의 자취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의 농업 혁명 정책(1장), 서로 다른 경력을 지녔던 두 명의 저명(해진) 과학자의 인생 여정(2, 3장), 소농민들과 지역 당 간부들이 과학 영농 기획에 참여하는 과정(4, 5장), 향촌으로 파견된 청년들이 과학 영농에 참여하며 지녔던 이상과 현실(6, 7장)이라는 다양한 행위자들에 관련된 폭넓은 연구의 결과물만큼, 쉬말저의 저서에는 하나의 주제 의식 아래에는 다 묶이지 못할 만큼, 과학 기술사, 농업기술사, 동아시아사 분야에서 중요한 여러 테마들에 대한 논의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연구자로서 책을 덮은 뒤 가장 먼저 드는 감상은 한국 농업에서의 녹색 혁명, 백색 혁명은 중국에서의 그것과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가 분석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전원의 풍경과 삶의 개선을 목표로 내걸고 시작된 새마을 운동, 과학적 농법을 보급한다는 기치 아래 추진된 기술봉사단 사업, 대표적인 한국 녹색 혁명의 사례이자 실패로 꼽히는 통일벼의 개발과 산미 증식 사업 등은 중국과 한국의 농업 혁명이 큰 틀에서는—비록 문화 대혁명에 비견할 만한 사건은 한국에서 없었지만—유사한 의제 아래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해당 사업들에 대한 수준 높은 선행 연구들이 이미 존재하지만, 쉬말저와 같은 수준으로 참여한 행위자들의 실천, 삶의 변화까지를 종합적으로 조명한 연구는 아직 없어 보인다.² 정부의 프로파간다를 해석하고 인터뷰와 관

¹ 마오 시기의 과학, 문화에 대한 최근의 재조명은 Joel Andreas, *Rise of the Red Engineers: The Cultural Revolution and the Origins of China's New Clas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Sigrid Schmalzer, *The People's Peking Man: Popular Science and Human Identity in Twentieth-century Chin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등이 있다.

² 김태호, 『근현대 한국 쌀의 사회사』 (들녘, 2017); 이영미, “1970년대 과학기술의 ‘문화적 동

런 자료들의 배치를 통해 그 해석을 뒷받침함으로써 해당 시기의 거시적·미시적 상황들을 파악한 쉬말저의 방법론이 한국의 농업기술사 연구에서도 활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원: 새마을기술봉사단 사업의 전개와 성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등 참조. 최근 문만용은 해방 이후 농민들이 남긴 일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농업과 농민들의 삶의 변화를 함께 조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문만용, “일기로 본 박정희 시대의 ‘농촌 과학화’”, 『지역사회연구』 21:1 (2013), 25-43.